아워홈 합격 자기소개서

직무 : 인사

1. 지원동기

<코이(Koi)의 법칙>

관상용 물고기 중 코이라는 종은 어항에 넣어두면 3~5cm밖에 자라지 않지만 연못에서는 20~30cm로 더 크게 자라난다고 합니다. 'HR'에 대한 제 가치관 또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조직의 경영목표와 전략에 맞는 인재를 채용, 배치한 후 교육, 보상 등을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은 임직원을 어항이 아닌 연못에서 성장하도록 돕는 HR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워홈은 불모지였던 국내 급식분야에 체계적인 선진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급식산업의 발전을 견인하며 위탁급식시장 점유율 1위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멈추지 않고 식품제조, 외식, 식자재, 글로벌유통 등으로 사업분야를 넓혀 나가며 종합식품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 연못에 안주하지 않는 아워홈의 비전을 확인할 수 있었고, HR에 대한 가치관을 실현시키고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치관'과 '확신'을 통해 아워홈이 연못을 넘어 드넓은 바다로 나아가는 데 등대가 될 HR Specialist로 거듭나겠습니다.

2. 우수한 성과

<모의재판의 패러다임 전환>

대학시절 모의재판에 대한 상식의 틀을 깨는 시도를 통해 “열린 생각”을 실천해 왔습니다.

민사법학회의 집행부로 모의재판 대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름방학 동안 대본을 만들었지만 담당교수님으로부터 돌아온 것은 부정적 의견뿐이었습니다.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타학회 대본을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파악한 문제점]

1. 이미 존재하는 판례를 각색한데 불과한 점

2. 각 학회가 연구하는 법률에 국한되어 있는 점

3. 최근 이슈와는 관련이 없는 점

위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전례 없는 스토리를 구성하고, 민법영역에 국한되지 않는, 최근 이슈와 결부되어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대본을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당시 친일후손의 재산환수 특별법에 대한 입법이 큰 화젯거리였고, 이 법률이 재정되었다는 가정 하에 재산을 환수 당하게 될 친일자손이 정당한 권리 없이 부동산을 매매하는 상황을 대본으로 구성했습니다.

이슈임과 동시에 결과를 알 수 없는 판례에 100여명이 넘는 학생들과 현직 변호사 선배님까지 모의재판을 찾아주셔 가장 큰 성황을 이룰 수 있었고, 교수님께서는‘가장 창의적인 모의재판’이라는 평을 해주셨습니다.

<위기를 극복한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신뢰”가 가득한 조직문화를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소대장으로 부임한지 얼마지 않아 한 소대원이 탈영을 하였고, 처음으로 책임의 무거움을 실감하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잘못된 조직문화를 밝혀내고 올바른 방향으로 바꿔나가기 위해 탈영의 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상하간의 대화부족으로 악폐습 등이 자리잡고 있었고, 해결을 위해 다양한 대화채널을 마련하였습니다. 분대원간의 ‘나눔일기’를 쓰고, 매주 수요일 ‘치킨데이’를 만들어 이등병부터 소대장까지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 무사고 소대로 선정되는 성과를 올렸고, 무엇보다 끈끈한 ‘상호신뢰’를 최고로 여기는 조직문화로 탈바꿈 할 수 있었습니다.

3. 가치관

<과거와 현재, 현재와 미래 그리고 열정>

대학교를 중퇴한 후 순전히 호기심과 직감만을 믿고 서체 수업을 도강했던 한 청년은 최초로 아름다운 서체를 가진 컴퓨터를 만들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그랬던 것처럼 과거와 현재가, 현재와 미래가 어떻게든 연결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이 믿음은 매 순간을 열정적으로 사는 동기가 되어왔습니다.

고교시절부터 교우들과 축구팀을 함께 해오며 틈틈이 왼발을 쓰는 연습을 해왔고 마침내 왼발에서 오른발의 감각과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있었던 교내 대회에서 왼발로 결승골을 넣는 우연을 연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거와 현재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와 미래 또한 언제나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으로 매 순간의 일을 즐기고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열정”을 통해 HR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무한한 자기혁신을 통해 아워홈이 “최고”가 되는데 기여하겠습니다.